

1. 개요

1924년 6월 <개벽> 48호에 발표된 현진건의 단편소설.

저작권이 만료되어 위키문헌에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절박하고 비참한 삶을 반전을 이용해 충격적으로 그려냈다. 슬픈 내용인데 패러디가 자주 되는 소설이기도 하다. 영어 제목은 'One Lucky Day'.

2. 줄거리

배경은 1920년대의 경성부이다. 주인공이자 인력거꾼 김 첨지의 아내는 병에 걸린 지 1달 가량이 지나 있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김 첨지의 신조 때문. 사실 이건 핑계고, 약을 살 돈도 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유가 더 크다.[2]

아내의 병이 더 악화된 일도 있었는데, 며칠을 굶은 아내가 '김 첨지가 오랜만에 돈을 벌어서 산 조로 밥을 지었는데 다 익지도 않은 밥을 급하게 옥여넣으며 먹다가 체한 일'이었다. 여기서 체했다는 것은 식도에 밥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레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앓아 누운 것. 오래 굶은 사람은 평범한 음식을 바로 먹으면 소화는커녕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비오는 날, 인력거꾼 김 첨지는 그 날따라 유독 가지 말라고 말리는 병든 아내를 두고 돈을 벌러 나온다. 그런데 그 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아서 김첨지는 2원 90전이라는 돈을 벌었다.[3][4][5]

하지만 집에 가까이 갈수록 어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져 불길해 하던 중, 그 불길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마침 친한 친구 치삼이를 만나 그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취중에 '우리 아내가 죽었네',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술이나 처먹고 있으니 내가 죽일 놈이다'하고 농담을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아내가 그리도 먹고 싶다던 설령탕을 사서 집으로 돌아간다. 설령탕은 김첨지가 취중에도 잊지 않고 사들고 왔다. 무식하고 거칠지만 속은 자상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설령탕을 먹고 싶어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 있더라는 내용. 설마설마하던 불안감을 계속해서 느끼던 김첨지는 결국 아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 시신을 붙들고 절규하며 "왜 설령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냐"고 목놓아 울부짖으며 절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운이 매우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가장 최악의 날(운이 매우 좋지 않았던 날)이었던 것. 몇몇 사람들은 죽기 전 자신이 죽을 때가 왔음을 직감한다고 하는데, 아마 아내도 자신이 죽을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등장인물

김첨지

주인공. 직업은 인력거꾼으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빈민층. 배경은 경성(현재의 서

울특별시)이며, 동소문(현재의 종로구 혜화동)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묘사를 볼 때 김침지의 거주지는 정황상 낙산(현재의 이화마을 부근)이었을 것이다. 평소에는 인력거일이 없어 가난하게 지내지만, 작중 배경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 주려고 했으나 이미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슬퍼한다.

겉으로는 아내에게 막말을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닮고 아내를 걱정하는 면도 있다. 아내가 조밥을 잘못 먹고 병의 악화로 눈까지 흰자위를 보이며 뒹굴 때 화를 내며 뺨을 때린다. 이 때문에 김침지가 가정폭력을 한다고 비판받는다.[7] 더불어 행동과 달리 속으로는 미안해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자신 역시 이 지독한 가난과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속으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걸 보아...

아내

김침지의 아내. 가난으로 인해 심한 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이 심하게 악화된 것은 어쩌다 김침지가 얻어온 조 한 되를 그냥 솥에다 넣고 익히다가 그동안 앓던 허기에 눈이 돌아 설익은 조밥을 허둥지둥 급하게 먹다가 크게 체해서... 마지막에 설렁탕을 먹고 싶어했으나, 결국 먹지 못하고 사망하고 만다.

치삼이

김침지의 친구로, 직업은 김침지와 마찬가지로 인력거꾼. 소설 중후반부에 잠시 등장하며, 김침지와 180도 대조되는 당당한 풍채의 모습으로 나온다. 선술집에서 친구 김침지와 얘기를 나눈다. 거구의 외형과 달리 목소리가 연하고 짹짹하다고 한다.

4. 소설 전문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8]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번째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댕바람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웬만큼 있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켄켄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럭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끓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 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눕는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 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 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켕긴다고 눈을 홑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 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 년, 조랑복[9]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하고 김 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홑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 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령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령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령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세 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 팔십 전을 손에 쥔 김 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왜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 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 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10]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 —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빼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 하였다.

그때에 김 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압다, 젠장맛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맛 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찌기 들어와요.”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 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 차가 열 한 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든가.”라고, 중얼거린다.

“일 원 오십 전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 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래었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별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떡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이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잇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사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 날에 좀 더 주셔야지요.”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웃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데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 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뽏하였다. 달음질을 한다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군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얼은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쑹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영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싶다. 딸국딸국 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싶다. “왜 이리우, 기차 놓치겠구먼.”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 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예, 예.”하고, 김 첨지는 또다시 달음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 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재게 놀려야만 설새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일 원 오십 전을 정말 제 손에 짬에, 제 말마따나 십 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 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왔다.

줄부나 된 듯이 기뻐다. 제자식 뺨밖에 안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요.”라고 깎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텅텅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박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매 일 원 오십 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끼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웅송그러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맛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텅텅거리고 돌아를 간담.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핫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게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구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지도 몰라란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한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인력거꾼의 등쌀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차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 첨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퇴물인 듯, 난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 들었다.

“아씨, 인력거 아니 타시랍시요?”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텃갈을 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 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 첨지는 구걸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해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담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맥이 어디신가요.”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의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 귀치않게.”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 첨지는 어랍시요 하고 물러섰다.

전차는 왔다. 김 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豫感)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뽐뽐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걸 보면 아마 봄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내려온 눈치였다. 김 첨지는 대어섰다.

“인력거를 타시랍시요.”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육십 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 지매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 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이제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해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군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 땅에 어찌 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둡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달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와올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웠다.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에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奇蹟)에 가까운 별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 다고, 구해 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였거늘, 노르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수염도 있대야 턱밑에만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 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 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똥똥보는 말라깽이를 보든 말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탄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다. 김 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잔 한 모양일세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보이.”하고, 김 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압다,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 냐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원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앙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빠지듯빠지듯 구워지는 너비아니 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인 안주 탁자에 김 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 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음 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위선 분량 많은 빈대떡 두 개를 쪼이기도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주린 창자는 음식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들이라들이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 부와 미꾸리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세째 그릇을 받아들였을 제 데우던 막걸이 곱배기 두 잔이 더웠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히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놀러 곱배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 첨지의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두 개를 송덩송덩 찢어서 불을 불룩거리며 또 곱배기 두 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 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녀 잔씩 먹었네, 돈이 사십 전일세.”라고 주의시켰다.

“아따 이놈아, 사십 전이 그리 끔찍하나.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던 말인가?”

“삼십 원을 벌었어, 삼십 원을! 이런 젠장맛을 술을 왜 안부어…… 괜찮다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어,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 내냐, 어서 더 먹어.”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채며 취한 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열 다섯 살 됴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 놈, 왜 술을 붓지 않아.”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히히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내며, “에미를 붙을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하자마자 허리춤을 훑쳐훑쳐 하더니 일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펴놓아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 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었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 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뺏다구를 꺾어놓을 놈들 같으니.”하고 치삼의 주워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엿 돈! 이 욕시를 할 돈!”하면서, 풀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짹하고 울었다.

곱배기 두 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 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술잎 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 부어.”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 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 소리가 어떻게 컸는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 첨지에게로 몰리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고 정거장에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제 오기가 안 됐데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어름어름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마나님이신지 여학생님이신지 요새야 어디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던가 망토를 두르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받으라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핵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꺾꼬리 소리지, 허허!”

김 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꺾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이구 소리가 처신도 없지, 허허.”

웃음 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 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 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 첨지는 연해 코를 들며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엑기 미친 놈, 거짓말 말아.”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어 빼들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하고 김 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운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기었다.

치삼의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 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하고 득의가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 오라질 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

다.”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먼네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하고,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 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그래.”

김 침지는 핫증을 내며 확신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 원어치를 채워서 곱배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굶은 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 침지는 취중에도 설령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똑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 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일 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 침지가 주기를 떠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靜寂) -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 깨뜨린다느니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뻑뻑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젓 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聽覺)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뻑뻑 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 하고 젓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젓을 빨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 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맛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 침지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 떨어진 샷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케케히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던 김 침지의 코를 찔렀다.

방안에 들어서며 설령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군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晝夜長川)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뻑뻑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 똥이가 물었던 젓을 빼어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 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이년아, 죽었단 말이나, 왜 말이 없어.”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썹! 이 눈썹!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테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5. 평가

복선과 반전이 어우러진 흥미진진한 전개,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적절한 길이, 현대인의 입맛에 잘 맞는 김침지의 촌데레, 교과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오라질년'으로 대표되는 찰진 대사, 감정이입이 잘 되는 비극적 스토리가 어우러져 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서는 드물게 많은 학생 및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작중 선술집에서의 식사 묘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서민들의 식생활을 알 수 있는 건 덤이다.

덕분에 나온 지 100년째인 2024년 현재도 중학교 과정을 밟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내용을 꿰고 있는 국민 소설로 자리잡았다.

교과서에 실린 수많은 작품 중에서 독보적으로 깊이 각인되어 '오라질년' 하면 바로 운수 좋은 날을 떠올릴 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오마주와 패러디를 배출했다.

또한 초반에 돈이 잘 들어오나 후에 알고 보니 아내가 죽는, 어찌 보면 가장 운수가 사나운 날인데 제목을 '운수 좋은 날'이라 붙임으로써 반어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이야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모르고 보더라도 소설에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너무 자주 깊게 깔려 있어서 반전물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결말이 너무 뻔히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심상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려는 심리를 묘사하려는 작가의 의도적인 연출이기도 하고, 교과서에도 복선의 정석으로 많이 설명된다. 복선 자체를 알아차리기 힘들게 숨겨서 충격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현대 대중소설이나 영화의 반전기법은 복선의 원래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6. 김침지

1. 김침지의 기본 정보

직업: 인력거꾼 (1920년대 경성의 하층민)

가족: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개똥이'로 불림)

주거 환경: 본체가 아닌 행랑방 한 칸을 세 들어 살아갈 정도로 극심한 빈곤 상태

경제 사정: 몇 달 동안 돈을 구경하기 힘들 정도의 가난. 하루 벌어도 쉽지 않으며, 당장 아내의 약값·식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움.

2.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김침지의 모습

2.1 가난과 무력감, 그리고 폭력성

김침지는 늘 일거리를 찾아 헤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겨우 번 돈도 턱없이 부족함.

아내가 병에 걸려 한 달 넘게 자리에 눕게 되지만, 치료비나 약값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병은 약 먹여 내보내면 재미 들려 자꾸 온다”라는 핑계를 댈.

극도의 빈곤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 열등감, 죄책감 때문에 아내에게 “오라질 년” 등의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예) 아내가 설익은 조밥을 급히 먹고 체해 쓰러졌을 때 뺨을 후려침.

아내를 발로 차거나 심한 욕을 하는 장면에서 김침지의 거친 행동이 그대로 드러남.

하지만 이러한 폭력은 병든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뒤튼린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음.

2.2 거친 말투 속에 깃든 애정

김침지는 속정이 깊은 인물이기도 함.

자신이 돈을 벌기만 하면 아내에게 설령탕을 사 주겠다고 생각함.

가난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설령탕이 먹고 싶다” 할 때 속으론 늘 미안해함.

작품 후반부에서 어쩌다 ‘운수가 좋아’ 돈을 좀 벌자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병든 아내’임.

거친 언행과 달리, 술에 취해도 설령탕을 잊지 않고 싸들고 귀가하는 장면은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

가정폭력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당대 빈곤에 시달리는 하층민 남성 가장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라는 평가가 많음.

2.3 ‘운수 좋은 날’의 역설과 김침지의 심리

김침지는 어떤 날보다도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운수 좋은 날”이라 여김.

실제로 그날 벌이가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고, 심지어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손님들도 잇달아 태움.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자꾸 스며들어 계속 그를 괴롭힘.

아내가 “오늘만은 나가지 말라” 했던 간절한 부탁, 자꾸 기침하며 숨이 넘어갈 듯하던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

이 불안을 잊으려 술을 마시고, 자신을 자꾸 달래 보려 하지만 결국 돌아온 집에는 아내의 죽음이 기다림.

‘운수 좋은 날’이라던 김침지의 하루가 알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날이었다는 반어적 설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비참함과 무력함이 극적으로 드러남.

3. 작품의 결말에서 보여 주는 김침지

집에 들어섰을 때,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가져갔음에도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둠.

아내의 시신을 붙들고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라며 절규하고 오열함.

드디어 벌어서 사 온 따뜻한 음식 앞에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 무너짐.

겉으로는 “오라질 년”이라 욕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내를 지켜 주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음.

그의 폭력성, 거친 언행과는 별개로 “그래도 아내를 사랑했던” 모습이 최후 장면에서 극적으로 형상화됨.

4. 김침지에 대한 현대적 해석

4.1 시대적 배경과 빈곤이 만든 비극

김침지의 폭력적인 언행은 1920년대 가난한 가정이 겪는 심리적 압박, 그리고 전반적으로 낮은 인권 의식 등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음.

결코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무지·의료 사각지대 등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시대 하층민의 실태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김침지를 해석함.

4.2 춘채레적 요소?

요즘 시각에서 보면 김침지가 아내에게 거친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가정 폭력’임.

그러나 작품 내적으로 보면, 김침지의 욕설은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을 서툴게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

다만 현대에 와서는 폭력이나 욕설이 ‘애정 표현’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작중 시대상의 반영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

4.3 인간적 복잡성

김침지는 100년 동안 한국 문학사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입체적 캐릭터’임.

한없이 못나고 비열해 보이지만, 동시에 처절한 빈곤에 내몰린 약자적 모습도 함께 지님.

“오라질 년”이라는 상징적 욕설과 “설렁탕을 사왔는데…”라는 대사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점에서, 이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이 극명히 드러남.

5. 요약

김침지는 일제강점기 도시 빈민층 인력거꾼으로, 가난 속에서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임.

극심한 빈곤과 무력감으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지만, 이는 속으로 아내를 걱정하고 자기 자신을 타타는 심리가 뒤틀려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많음.

소설의 결말에서는 설렁탕을 사왔을 만큼 그날 돈을 제법 벌었음에도, 아내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는 비극을 맞이함.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과는 정반대로, 김침지 인생 최악의 날이 되고 만 셈.

작품은 김침지가 보여 주는 모순된 행동(거친 욕설과 내면의 미안함, 애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매우 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오늘날까지도 큰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음.

6. 김첨지의 대화 예시

나(행인): 아이고, 김첨지 아니시오? 오늘도 인력거 끌러 나오셨소?

김첨지: 예, 뉘신지... 이 우중(雨中)에 다들 짜증을 내는 통에 인력거도 잘 안 잡히네요. 에잇, 젠장맛을 비가 주야장천 내리니 일 나가기도 영 귀찮고... 그래도 밥 벌어야 하니 벌 수 있나?

나: 그러게 말이오. 날이 궂은데 몸은 좀 어떠시오? 듣자하니 댁에서 부인이 몹시 앓는다더군요.

김첨지: (한숨을 푹 쉬며) 에이, 오라질... 병원에 데려가 볼 돈이 있어야 말이지. 아내가 그냥 달포가 넘도록 기침을 달고 산다오. 오늘 아침에도 “나가지 말아요” 하고 붙들기에, 내가 무어 먹여 살릴 방도가 있어야지 안 나가겠소? 그저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니... 애먼 아내만 고생이지.

나: 그렇다고 너무 자책 마시오. 날이 풀리면 벌이가 좀 나아지겠지요.

김첨지: 자책은 무슨... 괜스레 아내한테 성질만 내곤 하니, 내가 못 쓰는 놈이지. 조밥 한 술도 제대로 못 먹여주고, 돈 좀 벌여 설령탕 한 그릇 사다 주겠다며 나왔는데... 이래 비만 내리고 손님 없으면 무슨 수로 돈을 벌겠소? (인력거 손잡이를 움켜쥐며) 에잇, 오늘 운수 좀 붙어야 할 텐데.

나: (조심스레) 부디 부인분 쾌차하시길 바라오. 김첨지도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김첨지: 고맙소. 젠장맛은 세상이라도 어떻게든 굴러가야 하지 않겠소. 만일 또 손님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달려봐야지. 아내가 설령탕 한 그릇 먹고 기운 좀 차리면 좋겠는데...

나: 오늘 같은 날은 손님도 많을 터이니 힘내십시오. 저도 조금 전에 전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맞기가 싫어 인력거 찾고 있었소. 조금만 기다리면 또 손이 나오겠지요.

김첨지: 그래주면야 얼마나 좋겠소. 자, 저기 또 전차가 들어오니 가 봐야겠소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소, 덕담도 해주고. 혹시 나중에 인력거 필요하면 불러 주시오. 힘닿는 대로 어디든 모셔다 드리리다.

7. 독자(사용자) 질문 & 김첨지 챗봇 답변 예시

예시 1

Q1 (독자):

“아내분 병세가 많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병원에는 가 보셨나요?”

A1 (김침지 챗봇):

“에이, 병원은 무슨… 병원 갈 돈이 어딴소.
게다가 병이란 놈한테 약을 쥐 보내면 재미 붙여 자꾸 온다는데,
그저 내 팔자 탓이오. 그래도 오늘 운수가 좋으니,
돈 좀 벌면 설령탕이라도 사 먹일 참이오.”

예시 2

Q2 (독자):

“보통은 아내분께 말투가 좀 더 부드러울 법한데, ‘오라질 년’이라 부르시기도 하더군요. 혹시 미워서 그러시는 건가요?”

A2 (김침지 챗봇):

“저도 사람이라오. 아내가 미워서 욕을 하는 게 아니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 발목이 붙들려서,
내가 무능한 게 억울하고 분해서 헛소리 나오는 거지.
실은 내가 제일 미운 건, 바로 나 자신이라오.”

예시 3

Q3 (독자):

“그렇게 힘든 날인데도, 왜 술을 드시는 건가요?”

A3 (김침지 챗봇):

“허허, 나도 자네처럼 묻고 싶소.
진탕 벌어서 집에 가기 망설여지는 거라오.
아내가 걱정되면서도, 막상 집에 가면
혹시 나쁜 소식이 기다릴까 두려워서…
술 한 모금 넘기면 그 불안이 잠시 잊히거든.”

예시 4

Q4 (독자):

“오늘 ‘운수 좋은 날’이라더니 실제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스스로도 그걸 느끼시나요?”

A4 (김침지 챗봇):

“하, 아침부터 손님이 줄을 서길래,
이젠 돈벌이가 제대로 되나 싶었지.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영 개운치 않아.
아내가 자꾸 나가지 말라며 붙들었는데…
혹시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지 모르겠소.”

예시 5

Q5 (독자):

“그래도 아내분을 누구보다 아끼시는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A5 (김침지 챗봇):

“에이, 그건 말할 것도 없소.

속에서 아내가 끓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둘 사람이 누가 있겠소.

마누라가 먹고 싶다던 설렁탕, 오늘은 꼭 한 그릇 사 갈 거라오.

내가 못나서 참 미안한 마음뿐이오.”